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한인 가톨릭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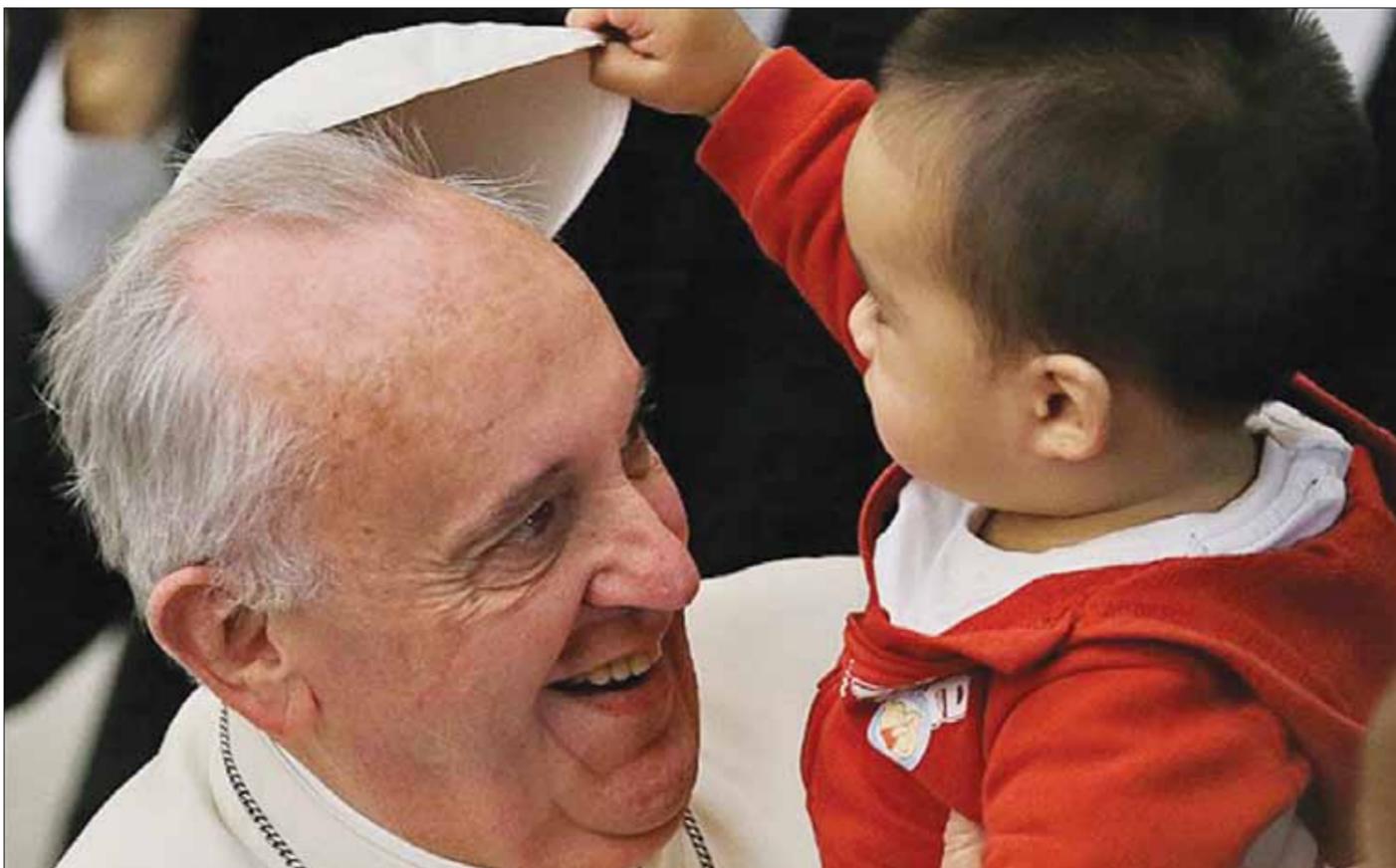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10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8월 1일 (월간)

# “아시아 청년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14-18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16일엔 광화문 일대에서 시복식 주례



해 아시아주교들을 만나고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8월 18일 오전 교황은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난다. 18일 오전 9시 45분에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고 이날 미사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분인가?



성명: 프란치스코 교황  
 세례명: 안드레아  
 생년월일: 1936년 12월 17일  
 출생: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학력  
 1963년 산미겔 시 성 요셉 대신학교에서 철학사 학위 취득  
 1967-1970년 산미겔 시 성 요셉 대신학교 신학 전공  
 1986년 3월 독일에서 박사 학위 취득  
 ▶수품  
 1969년 12월 13일 사제 수품  
 1992년 6월 27일 주교 수품  
 2001년 2월 21일 추기경 서임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

‘가난한 이웃들의 벗’ ‘개혁 교황’이라 불리며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인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제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지금 한국은 이달 14-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교황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교황은 상당수의 한국 순교자가 배출된 천주교 대전교구(교구장 유홍식 주교) 내 성지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청년대회(Asian Youth Day)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아시아청년대회에는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를 주제로 10일-17일까지 열린다. 22개국의 아시아 청년들 2천여명과 한국 청년 신자들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교황 프란치스코가 주례하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이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으로 한국인 순교자 124인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福子)’로 추대된다.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인원은 20만 명이지만 시복식을 보러 오는 시민까지 합하면 참가 인원은 5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복식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20분간 열리며 일반 신자의 행사장 입장, 교황의 퍼레이드, 미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황은 광화문 삼거리에서 태평로까지 세종대로를 통해 퍼레이드를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이전 265명의 역대 교황

운데 한국을 찾은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하다. 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 기간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03명을 성인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시성식을 주례했고 시성식을 로마 밖에서 거행한 첫 사례였다. 이로써 성인 103위가 탄생했고 한국은 세계 4번째 성인대국이 됐다.

####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일정>

▶8월 15일 오전 교황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신자들과 함께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다. 특히 이 미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초대되고 교황은 이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대표들은 지난 5월 30일 서울 대교구청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통해 교황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며, 한국 천주교회 건의에 따라 교황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이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교황은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눈다. 이 자리에는 교구장 주

교를 포함해 20명의 아시아 젊은이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교황은 성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인 솔피성지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을 만나 각국에서 처한 고민을 듣고 교황은 청년들을 위한 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16일에는 교황이 한국 천주교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미사를 집전한다. 시복식을 지역교회를 찾아 교황이 주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시복되는 이날 미사는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다. 교황은 이날 시복식에 앞서 한국의 최대 순교 성지인 서소문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한다. 서소문순교성지에서는 한국 103위 성인 중 44위,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중 27위가 순교했다. 교황은 시복식 이후 음성 꽃동네로 이동해 장애인들을 만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한다. 교황은 이어 한국 수도자 4천여명을 만나고,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한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는 천주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전국적인 협의체다. ▶8월 17일에는 충남 해미순교성지를 방문

# 사랑을 지키는 세 가지 말

###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몇 주 전 저는 이 광장에서 가족들에게 세 가지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세 마디가 열쇠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부부간에 고맙다고 말하나요? 실상 몇날 며칠이 지나도 우리는 이 "고마워"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라는 말 우리 모두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화산 폭발하듯 말을 쏟아내고 서로 험한 말들이 오고 갈 때 말입니다. 그 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평화를 말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

가족끼리는 서로에게 매일 이 평화를 빌어 줘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2013년 10월 27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대가족 순례' 설교 중-

#### ▶ "~해도 될까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여보, 나 오늘 회식하고 들어가도 될까?" "아빠가 네 컴퓨터

좀 써도 될까" "여보, 나 내일부터 수영강습 받으러 다녀도 될까" 이렇게 말함으로 써 서로에게 존경심과 배려심을 심어준다.

#### ▶ "고마워요"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말을 써야 한다. 애들한테는 배꼽인사를 시키고 자신은 정작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 말을 부모에게 듣는다면 '아!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고마움을 표시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 ▶ "미안해요"

교황님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마감하지 말라고 하셨다. "미안해요, 제가 깜빡 잊었네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 말만 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 시간에 가지 못해서" 단, 이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이지 "미안해요"란 말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 '코이노니아' 영상공개



지난 달 7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념하며 천주교문화예술체육인이 함께 한 홍보 영상 '코이노니아(Koinonia)'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차분하고 맑은 피아노 선율 위에 "당신에게 내 기도를 주고 싶어요. 푸르른 꽃씨 같은 사랑의 마음. 너와 나는 하나. 같은 꿈속에 피어 우린 모두 선물이 되죠" 라는 아름다운 가사가 담긴 노래이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어로 공동체, 친교, 소통을 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한국 사회에 큰 친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는 부제가 달렸다.

작곡가 노영심(마리보나)이 만들고 영상에는 배우 김우빈(베네딕토), 김태희(베

르다), 김희애(마리아), 안성기(사도 요한), 가수 바다(비비안나), 발레리나 김주원(힐데가르트) 등 총 36명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화려한 영화와 TV 속에서만 보던 유명인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상의 미소를 담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이번 영상에 참여한 제작진과 출연진은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음원으로 생기는 수익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 재단 등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음원과 영상은 교황방한 공식 홈페이지(popekorea.catholic.or.kr)와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에서 볼 수 있다.

# ♥ 축하합니다

#### ▶ 신부님

지난 7월 20일(일), 시드니 한인 공동체를 위해 영어 미사와 고해성사를 해주시는 홍(야고보)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여러 교우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 치러졌다. 홍(야고보)신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제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 ▶ 수녀님

지난 7월 27일(일), 좌(인노첸시아) 원장 수녀의 축일 축하식이 많은 교우들의 축하 속에 치러졌다. 축하식에서 원장 수녀는 모든 수도자들을 위해 다시금 기도를 부탁했다.

# 그리스도인의 향기 속으로



지난 7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2박 3일간 105명의 초등부 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주제로 모리셋 WEC 센터(Morriset WEC Centre)에서 펼쳐진 겨울 캠프를 다녀왔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을 쉽게 이해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시금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캠프를 위해 약 28명의 청년 교리 교사들이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 창세기 청년성서



지난 7월17일-20일 에드먼드 라이스 리트 센터(Edmund Rice Retreat Centre)

에서 제5차 창세기 청년 성서연수가 열렸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사랑을 드리고 신으로사는 병원은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 마지막 '하느님의 종' 윤봉문 요셉



이번에 시복 예정자 124위 중에는 한국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를 필두(筆頭)로 마지막 순교자인 윤봉문 요셉이 포함되어 있다.

윤봉문 요셉(1852-1888년)은 병인박해(1866년) 이후의 순교자 중에서 유일하게 복자 반열에 오른 분이다. 윤봉문 가족이 거제도에 정착한 것은 1868년경이다. 부친 윤사우(스타니슬라오)는 경북 영일군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의 입교로 가족 모두 영세하게 되었다. 신자가 된 윤사우의 가족은 양산 대청면(현 부산시 기장면)에 숨어 살았는데,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대마도로 피신할 목적으로 거제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윤사우는 날뿔팔이와 필묵(筆墨: 붓, 베풀) 행상을 하며 몰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옥포에서 동장(洞長)으로 있던

진진부를 알게 되었고 열심히 권면하여 입교시켰다. 한편 신자가 된 진진부(요한)는 윤사우의 둘째 아들을 사위로 삼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그가 윤봉문이다. 이렇게 해서 옥포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병인박해 이후에 대구본당에 초대사제로 부임하여 경상도의 사목을 담당하던 로베로 신부는 1887년 11월 신자들에게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처음으로 거제도를 방문하였다. 이때에 요셉은 신부를 안내했고 교리교육과 공소예절을 도왔다. 그 해 거제도에서 15명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 그러나 로베로 신부가 거제도를 떠난 지 몇 개월이 안된 이듬해 봄 그곳에서 박해가 일어나 1888년 2월 7일(음) 윤봉문이 체포되었다.

이는 공식적인 박해가 아닌 통영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를 체포함으로써 개인적인 탄

옥을 채우려고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는 한 불수호조약을 맺어 공적으로는 신앙이 허용되었던 시기였다. 즉 186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修交)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시골의 교우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방의 관리들은 이를 알고도 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에 윤봉문의 순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옥포에서 체포된 순교자는 거제 부사 박병용의 호출을 받고 거제관아로 끌려가 태형을 받고 투옥됐다.

그는 천주학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통영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상부의 지시로 진주로 옮겨졌다. 진주로 끌려갈 때는 칩냥쿨을 매어 끌려 갔는데 칩냥쿨이 마찰되어 피를 많이 흘렸다. 진주에서도 여러 번 문초와 혹형을 받고 1888년 양력 4월 1일 교살(絞殺: 목졸라 죽임) 당해 순교하였다. 당시 37세로 유족으로는 부인 진 아네스와 아들 학송(루카 7세) 딸 송약(카타리나 2세) 남매가 있었다. 순교자의 유해는 진주 장재리 공소의 교우들이 공소 뒷산에 매장하였다. 10년 후 1898년경 당시 옥포 본당 복사로 있던 성(成氏) 바오로가 순교자의 유해를 거제도로 모셔왔고 옥포 앞산의 죽박골에 안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로베로 신부(1853-1922년)의 서한집 1권** 저자는 윤이 좋게도 순교자 윤봉문을 친밀하게 알았으므로 그가 열심히 교우였으며 비신자들을 위한 열성이 가득하였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에게 눈길을 주어 여러 섬에 신앙을 전파하

는 일에 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저에게서 일찍 빼앗아 가셨지만 그것은 당신의 충실한 벗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을 그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흘린 윤봉문 요셉의 피가 거제도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싹트게 하리라고 희망할 만한 여러가지 조짐이 있었습니다.(1887-1888년 기록)

### 병인 치명 사적 18권

진주 진영(陣營)으로 이수(移囚: 범인을 옮김) 하였더니, 영장(營長) 구연팔이 윤봉문에게 물어 가로데 “너는 무엇을 하느뇨?” “천주교를 합니다.” 영장이 다시 묻기를 “너 천주교를 하면 읽어보라.” 하기에 십계명을 읽으니, 영장이 다시 묻기를 “너 천주교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답하기를 “양대인(洋大人: 서양신부)에게 배웠습니다.” 또 묻기를 “진서(한문)로 배웠느냐, 언문(한글)으로 배웠느냐?” 대답하기를 “언문으로 배웠습니다.” 영장이 말하기를 “언문으로 배웠으면 가짜를 배웠구나.” 하고, 또 “너는 웃관(上官)께서 ‘도적으로 죽이라’ 는 분부가 있는 고로 내가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그를 오문(午門: 남쪽 문)으로 보내어 가둔 후에 모든 하인에게 분부하여 가로데 “이 일은 누구에게도 누설치 마라.” 명하고 옥중에서 가만히 교살에 처하니, 그의 나이는 37세로 무자년 2월 21일이다.(후기: 당시 언문은 아녀자나 쓰는 하찮은 상형문자(象形文字: 그림문자)로 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 하느님의 종 김대권 베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빛이라는 것을 알지만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게 녹록하고 호락호락 하던가? 머리로 아는 신앙의 삶과 손과 발과 가슴으로 일구어가는 실제 삶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느님의 종 김대권 베드로(?-1839년)의 삶이 그러하였다.

충청도 청양 출신으로 어려서 입교했으나 별로 열심히 않았고, 충청도 공주 웅기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아내와 불화가 잦았다.

그날도 부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고 김대권은 방에 부인은 부엌에서 눈을 붙였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주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깜짝 놀라 깨어보니 호랑이가 아내를 물고 달아나는 참이었다. 호랑이를 쫓아가 크게 다친 아내의 생명을 구했다. 김대권은 이 사건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늘 함께 계시어 생명을 구해주신 천주님을 깨달으며, 부인과 천주님 그리고 자신과 화해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 서로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둘만이 아닌 하느님과 삼자(三者)가 화해하는 것, 이제야 마음으로 깨달은 대단한 가르침이다.

천주님은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곡식한 초가삼간 미친한 자와 함께 계시며, 그것도 늘 노심초사(勞心 焦思)하시며 잠자는 순간에도 돌보시고 계신 하느님의 현존 체험! 이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먼지 구덩이 속에 있던 성경을 불신앙의 먼지와 함께 털며 늘 읽고 묵상하며, 수계하고, 기도하였다. 집안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권면하며 전교하는 신앙인 천주학생이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사순시기와 대림시기가 되면 하루 한 끼 식사 그것도 찬 물에 밥을 말아 소금 반찬뿐인 거친 식사를 하며 희생과 극기의 삶을 살았다.

1816년에 유희박해 때에 동생 김화춘 야고보(시복 예정자)가 대구에서 참수치명하자 순교의 거룩한 피가 묻은 목침 위에 턱을 고이며 순교를 갈망하였다. 신앙 생활을 잘하

기 위해 이사 온 전라도 고산 지방에 1827년에 박해가 일어나자 교우들에게는 피신을 권하고 자신은 기꺼이 포승줄을 받고 수감되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참천주를 공경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가혹한 고문으로 온몸에서 피가 시냇물 흐르듯 하는데 열심히 “예수, 마리아” 를 부르며, “천주의 은혜를 만 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의 수난에 자신의 고통을 합하는 것이었다. 배교를 계속 강요하며 온갖 고문을 가하니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살과 뼈에 사무쳐 있어서 사지를 자르면 그 하나하나에 이 생각이 배어 있고, 뼈를 부수면 뼈 한 조각 한 조각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만 번 안 될 말씀입니다.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천주님과 만난 뒤 일상의 삶을 말씀만으로 살아왔음이 입증되는 고백

이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말씀이 골수에도 새겨져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육화(肉化)된 것이다. 살 속에 뼈 속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 매를 맞아 죽어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깊이를 그려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필자가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는가?

아들의 목에 칼을 대며 배교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에 오히려 “내 아들이 이런 일로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광” 이라며 아들 대신 천주를 택하는 신앙에서 아들 이삭을 내어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

김대권은 정해박해(1827년) 때에 사형언도를 받고도 바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김대권, 전주 숲정사에서 그렇게 그리던 천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부활한 것은 1839년 5월 29일이었다.

다음은 복녀(예정) 이성례 마리아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김상진 회계사 사무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통장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대표 변호사 **이강원 안토니오 (Anthony Lee)** 법률사무소 **바른길**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 법대졸업, 성공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제일종합금융**  
흥론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매명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 최고의 무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



매년 날씨가 쌀쌀해지면 중고등부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느껴진다. 그것은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 속 뜨거운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다행히 겨울이 늦게 찾아왔지만 5월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우리 교사들은 '열린마음제' 준비로 분주해진다.

'열린마음제'란 매년 7월에 열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술제로 올해 주제는 '아주 먼 옛날'로 정해졌다. 평소 학생들이 낯설어 하는 구약성경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이를 주제로 선택한 것이다.

수 없는 회의 끝에 드디어 7월이 오고, 학생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학년마다 모여 열심히 연습을 한다. 선생님을 잘 따르는 학생들의 모습은 평소에도 보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안무도 맞춰 보고 연습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새삼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여러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절로 감탄하게 된다. 선생님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성당에 발 도장을 찍으면서 무대 위에 쓰일 소품이나 의상, 대본을 바꾸고 또 바꾼다. 몸은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학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꾸며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욕망과 열정은 끊임없다.

아침부터 모여 리허설을 하고 여기저기 학생들의 웃음 섞인 긴장된 얼굴들과 선생님들의 잔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열심히 달려온 만큼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무대가 열린다.

첫 무대는 7학년의 '욘'에 대한 연극으로 시작됐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표정이나 연기력이 서툰고 많이 부족하지만 역시 7학년은 학생들의 순수함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다. 8학년은 여러가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 맞춰 선생님들이 노래와 춤을 많이 담은 '다니엘'에 대한 연극을 준비했다. 나이

를 뛰어 넘는 춤과 노래 실력을 보며 정말 어린 꿈나무들이 많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HSC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와중에도 성당에 나와 너무나 재미있고 웃음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 준 12학년 학생들의 카메라 속에 담긴 무대를 보고 다음 무대로 넘어간다. 올해가 마지막 열린마음제인 11학년 학생들의 마음이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섬세하게 연습한 땀과 노력이 흰하게 보이고 귀여운 커플댄스로 마무리 해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 다음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10학년의 삼손과 데릴라의 현대화 연극이다. 7,8학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컸다니, 이제는 알아서 서로 챙겨주고 직접 무대를 조금씩 바꿔 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또 뿌듯한 마음이 든다. 마지막 무대는 9학년의 아담과 이브의 특색 무대가 열렸다. 오로지 그림자를 이용해 아무런 대사나 해설도 없이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는데 많은 관객

의 마음을 짙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한 무대였다. 마지막은 선생님들의 깜짝 댄스 무대였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웃고 자유롭게 춤추면서 2014년 '열린마음제'의 막은 그렇게 내렸다.

올해는 아마 몇년간 보지 못했던 최고의 창의력과 노력이 들어간 무대들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준비해가며 아름다운 무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주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올리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신 신부님과 수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일 저희와 함께 오셔서 간식과 밥을 해주신 모든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선 선생님들은 고맙다는 말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연습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소리도 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고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애들아! 선생님들이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알지? 너희 모두 한명 한명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주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드리고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함께 고생하고, 웃고 울고 지내면서 어느덧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고 말로는 표현 잘 안하지만 지금처럼 항상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학생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냐는 미카엘라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Smart Eye**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e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계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사무실 전화 시스템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